



새마을호 타고 법문 들으며 성지순례

철불협 초파일 전후 봉축열차 추진

로 열차를 대여하는 일종의 '패키지 여행 상품'이다. 또 필요에 따라 객차 내부는 연꽃 등의 장엄물이 설치되며, 이동 중 객차에서 법회봉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철불협은 우선 영상 장비가 완비되어 있는 새마을호를 활용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철도청차량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철불협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4~5일 대전 스파텔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주최 '신년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원장 도영스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철불협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철불협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철마는 자비를 신고, 노숙인과 함께' 행사를 11월부터 18일까지 잇따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1,400여 철불협 회원들이 자비의 실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5백여만 원 상당의 내의와 양말을 노숙자들에게 전달한다.

철불협 박장식 실무운영위원장은 "봉축열차 운행은 일반사찰, 불교단체 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한 불교계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직장·직능 불자회에서 주요 실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지순례가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올 봉축기간 동안 패키지 형태의 봉축열차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00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봉축열차에서 시연된 선무도 동작.

'기차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성지순례를 떠난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이용일·철도청 차량본부장, 이하 철불협)는 신년 사업계획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간 전후로 '패키지' 상품 형태의 봉축열차운행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봉축열차의 운행은 일반 사찰이나 여행

객차내부 장엄·각종 법회봉행시설 제공

11~18일 4지역서 '...노숙자를 신고' 행사

사가 철도청에 열차 사용신청을 하고, 철도청은 이용객객수 등을 고려해 전세 형식으로

남에게 제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도 지원 방식

전국조직체로 확대 개편

세무사불자회 조직, 수도·대구경북권 등 5개권역으로

세무상담창구 불자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세무사불자회가 미장립 지역의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세무 상담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조세 관련 각종 직장불교회와 연계해 합동법회, 성지순례 등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는 10

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갖고 이 같은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회원확보에 나섰다.

세무사불자회는 우선, 서울을 거점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기존 조직을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광주 호남권, 대전 충청권 등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세무 상담 활동 전개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세무 상담 창구를 불자회 홈페이지(www.buddhatax.com)로 일원화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또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세무사회보>, 불교계신문 등에 회원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지역 단위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 130여 회원을

갖고 있는 세무사불자회는 지역의 불자 세무사 수를 대략 4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권의 경우는 이르면 다음달 말경에 불자회가 창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관련 동일 직종 불자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국제 불자회 보리회와 첫 합동법회를 봉행해 조세업계 불자회간 교류의 물꼬를 튼 세무사불자회는 올해부터 성지순례, 수련회 등도 공동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나 갈 계획이다.

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전문직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영호남 산악인 불자들

탐사서 합동법회·시산제

영·호남 산악인 불자들이 지역 감정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화합을 다지는 합동산행을 가졌다.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와 부산불교산악회(회장 강갑근), 대구 영남불교대학산악회(회장 김지규)는 12일 전북 진안 마이산 탐사를 찾아 합동법회와 시산제(始山祭)를 봉행했다. 300여 영·호남 불자 산악인들은 이날 합동법회에서 화해의 악수, 화합의 포옹을 나누며,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광주불교산악회 정대석 홍보부장은 "앞으로 정기 합동산행을 통해 영·호남 불자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찰불교회

'나누어 보태는 생활 하세! LOVE POLICE.' 2천여 전국경찰 불교회 경찰보살들이 내건 올해의 봉사활동 표어입니다.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상 확립을 위한 우리 불자회의 의지를 담은 겁니다. 창립은 80년대 자생적으로 결성된 치안본부의 '연꽃모임'에서 비롯됩니다. 이후 87년 발족한 대한 불교경승단은 산발적으로 실행활동을 하던 경찰불교회를 전국 단위로 묶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고 소담하지만 했던 경찰불자들의 불심은 드디어 2001년 4월 창립된 '전국경찰불교회'로 활짝 꽃피우게 됐습니다.

전국경찰불교회의 창립은 기존 경찰관서의 불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던 경찰청 불교회에

불교 직장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적잖은 곤란도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수성,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교회 활동 중단, 주먹구구식의 불교입문, 지도법사의 부족 등은 경찰 불자들이 법음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회 회원들은 막중한 업무를 거뜬히 해내는 것은 물론, 실행과 포교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의 불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도법사 부족현상은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청년포교를 위해서 전·의경 법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해 목표로 '잡 불자되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전

"나누어 보태는 생활하세" 올 활동표어

15만 경찰가족 대상 불법전파에 최선



◇전국경찰불교회 회원 불자들은 계급, 나이를 초월해 '합정인사하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회장이 선출되고, 자체적인 불교입문 강좌도 개설되는 등 전국 경찰 식구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남을 시범점찰청 내 사무국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전국경찰불교회는 15만 경찰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하는 화 등 19개 경찰서,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등 현재는 13개 지부와 57개 지회를 갖춘 전국단위

국의 경찰불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조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경찰청 내 사무국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전국경찰불교회는 15만 경찰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하는 화 등 19개 경찰서,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등 현재는 13개 지부와 57개 지회를 갖춘 전국단위

■김진홍 전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단체장



모범공직자 대통령상 수상

김은혜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로부터 모범공직자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2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김철선 대한불자기수회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종실스님 초청 정기법회

김종환 대전불교연륜인회 회장은 28일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성북사암련·성북서와 법회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 회장은 24일 오후 4시 구청 5층 강당에서 성북사암련합회, 성북경찰서 불교회와 합동신년법회를 봉행한다.

우리 모임에선

전국교사불자련, 동계수련대회

전국교사불자련합회(회장 임원숙)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합천 해인사에서 동계수련대회를 갖는다.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예불·참선 및 문화유적순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1)764-2115

과천청사 5개 불자회 성도절 철야정진

과천 정부종합청사 5개 불자회는 9일 과천 보광사에서 성도절 철야정진 법회를 열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가 주관하여 열린 이날 법회에는 공경거래위원회,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5개 정부부처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